



평화학을 연구하는 학자 정희진 씨의 한겨레 토요판 '정희진의 어떤 메모' 코너, 제가 애독하는 코너인데. 오늘자에 실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일부를 소개하며 조간브리핑 시작하겠다. 하나님 나카무라 유지로·우에노 지즈코가 쓴 책 '인간을 넘어서'를 토대로 한 건데,

"최근 한국 사회 외모주의의 가장 큰 피해 집단은 노인이 아닐까. 노동시간은 짧아지고 평균 연령은 길어진 고령화 사회. 모두가 "곱게 늙자"고 외치고 있다. '곱게 늙음'은 성형외과 문전성시부터 "인생 이모작", "꼰대 되지 않기" 등 노인형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다른 삶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스코트 니어링처럼 스스로 죽을 시기를 정하고 곡기를 끊거나, 질 들뢰즈처럼 아파트에서 투신하거나, 작가 북거일 씨처럼 암 진단을 받았지만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년의 자살은 다른 연령대만큼 비난받지 않는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선택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가장 지지하는 내용은 194쪽에 나온 유명 소설가 아리요시 사와코의 인터뷰다. "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지라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는 일본 문화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체액이 통제되고 주름이 없고 머리숱은 풍성하고 허리는 곧으며...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꿈꾸는 몸이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똥똥한' 여성, 성적 소수자, 이들에 대한 차별은 바로 몸에 대한 비현실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육체적 고통, 신체의 비참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도 (마음속으로는) 우아한 몸가짐을 요구한다. "몸 밖의 대소변"을 수용할 때 살아 있는 이웃들의 다양한 몸도 존중할 수 있다. 인간이 사망하기까지 평균 투병 기간은 10년. 그 취약하고 '못생긴' 시절도 소중한 삶의 일부다. 어린 미모가 최고 가치인 사회에서, 나이 들과 그에 따른 미추 관념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년만의 과제가 아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프랑스 파리 시내 중심가인 10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시간은 금요일 밤. 이곳에서만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파리의 축구 경기장의 술집에선 3건 이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프랑스 경찰은 총격과 폭발로 한국 시각 토요일 아침 8시 현재 6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총격 범들은 칼리시 니코프 소총을 사용했으며 범행직후 달아났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주말에는 젊은 파리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누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침 8시 프랑스 현지 언론은 60명 사망으로 보도한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중국 관제소가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미군) 항공기는 위축되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폭격기를 지난 주말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남중국해에 접근시켰다. 지난달 27일엔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이지스함을 진입시켰다. 중국은 이에 맞서 남해함대 소속 쟈 전투기로 실전훈련을 하고,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미 군함의 진입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배부른 정당, 더 큰 정당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욕심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말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결국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어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수를 늘려 놓여준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와 놓여준 의원들 입장이 같아, 당내 갈등 요소가 적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선진화법 개정까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합의가 불발됐다며 격앙됐습니다. 특히 전남 등 통폐합 예상 지역이 주로 비주류 의원들 지역구여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용민의 새 책 안내

김용민의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인터파크 <http://goo.gl/tvdp7E>
G마켓 <http://goo.gl/HDXKo1>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 지식라디오 방송선생님 모십니다

<http://www.podbbang.com/info/geesik>

[경향신문] 강동순, 청와대 KBS 사장 선임 개입 폭로

첫 소식은 KBS 사장을 청와대가 낙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김 모 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를 청와대 지명 후보로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달라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뉴스타파에 “추석 연휴 때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씨가 (청와대 지명 후보로)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달라고 했고 이인호 이사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전화 받았다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리포트에서 고대영 사장 후보와 관련해 “국정방송 KBS를 위한 맞춤형 사장”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 폭로가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한 강동순 전 후보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강동순 전 후보는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강 전 KBS 감사는 3선의 경북 영주 장윤석 의원에게 본인도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그는 “3선 의원인데 경북 영주 사람, 장윤석 의원한테 내가 도움을 청했다. 도와달라고. 청와대에서 고대영 미는 거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고대영 씨의 KBS 사장 입성은 ‘김 모 수석’의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사실보도조차 가로막으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행하고,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접대 받으며 KBS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인사가 어떻게 KBS 사장 후보자 자리에 올라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되었는지 분명해지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도덕성도, 리더십도 갖추지 못한 ‘불공정 편파방송 종결자’ 고대영 씨가 KBS 사장에 선임될 경우 그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를 청와대 홍보방송, 국정방송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의 국정화, 청와대 작품이었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어떤가. 이 기사로 이어가보겠다.

[경향신문] 국정화 찬성 서명 ‘차떼기’ 조작·동원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의견 접수가 마감된 지난 2일 교육부에 제출된 찬성 의견·서명지들이 무더기로 조작되거나 명의 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찬성 의견서·서명지에서 한 사람의 필체로 10여 명씩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복사해서 함께 제출됐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낸 찬성 서명지들도 확인됐다. 의견서를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의 찬성 의견서가 포함돼 명의도용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은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료’를 열람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좌관들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분류해놓은 일반 시민단체·개인별 박스 62개 등 100개가량 박스에 대한 확인 작업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정부가 여론수렴을 마감하기 전 보수단체 등에서 반대 여론에 크게 밀리는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들을 급하게 조작·동원한 정황으로 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허위로 진행한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성심껏 의견을 제출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사설] ‘도쿄재판 검증’ 아베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 할 텐가

어제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실은 내용, 경향신문은 오늘자에서 사설로 받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단죄한 도쿄재판 검증을 위해 총리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한다. 도쿄재판은 나치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전후 처리의 양대 축이다. 일본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권을 회복해 국제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므로 이를 검증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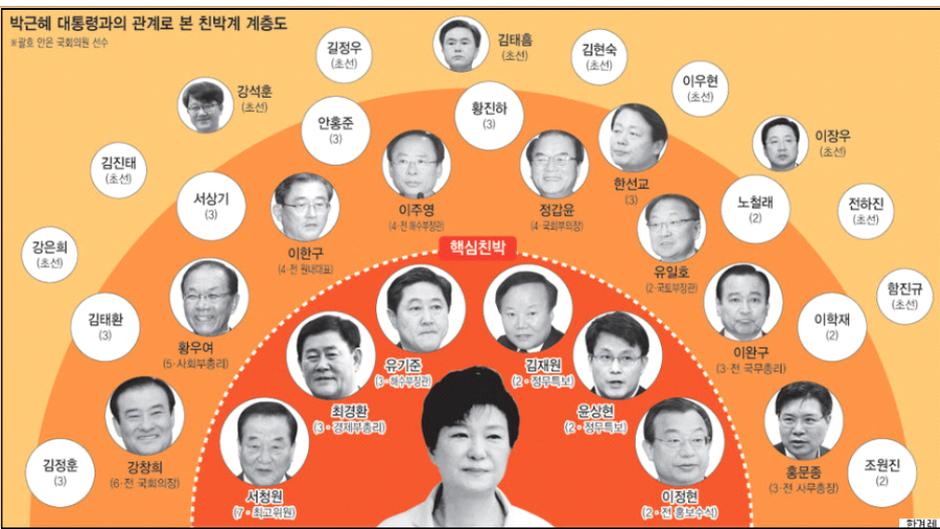
일본의 도쿄재판 검증은 이웃 국가에는 패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평화의 역주행이지만 아베 총리 스스로에게는 확신에 찬 사안들이다. 2차례 집권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진단한 일본은 ‘패기 제도’ 사회였다. 잃어버린 20년으로 경제는 파탄 났고, 젊은이들도 패배의식이 만연했다. 그는 위축된 역사인식부터 바뀌야 한다고 여겼다. 때맞춰 중국 팽창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던 터였다.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에게 들러붙어 있던 전범 딱지를 뗄 필요도 있었다. 우익들은 오래전부터 도쿄재판 검증 1000만 명 참여 등 물밑 준비를 해왔다.

판단이 끝난 사안을 두고 이런 낡은 싸움을 진행하는 아베 총리의 모습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권 내에서는 일본극우 용어인 ‘자학사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인다. 잘못된 감추고 자랑하고 싶은 역사만을 기록하려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아베 총리를 역사 수정주의자라고 했던 그간 비판이 낮 뜨거울 지경이다. 국가가 해석한 하나의 역사만을 올바른 역사라고 하는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주문할 명분도 없다. 역사의 기록은 바꿀 수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은 변치 않는다. 아베 총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 자신부터 떼뗄 해야 한다.”

[경향신문] ‘진박’ 내부에서는 서열 타령

나라가 법도는 물론, 상식마저 잃어버린 세태다. 친박이나, 진박이나, 세인의 웃음거리가 돼 가고 있는 친박 이야기, 계속해서 경향신문 기사 또 살펴본다.

“자칭 ‘진박’(진짜 친박)인 한 새누리당 의원은 그제 기자들과 만나 “진실한 사람은 원래 50명 정도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갑자기 ‘진실한 사람’ 이야기를 하니 100명으로 늘었다”며 자신의 순위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들’ 발언 이후 여권 내부가 진박·가박 즉 가짜 친박 논란으로 달아 오르면서 이제는 ‘진박에도 서열이 있다’는 골품제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전까지 ‘친박’이라는 뭉뚱그린 개념으로 불리던 의원들이 진박·가박·용박(用朴·박 대통령을 이용함) 등으로 분화하면서



을 실어줬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개헌 선까지 의석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한다. 대권 후보가 없는 친박은 그 다음, 반기문을 영입해서 대통령을 시킨다. 그리고 외치만 하게 한다. 외교 국방 이런 것만. 그리고 나머지 즉 내치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세력의 장기 집권 야욕”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표는 “개헌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신문] [단독] 정동영 “난 눈도, 귀도 없는 사람”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함께 야권 신당론의 구심력으로 거론되는 정동영 전 의원의 ‘침거’가 길어지고 있다. 지금 이분이 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모임 소속으로 4·29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홀연 중국으로 떠났다가 지난 6월 말 귀국했고, 고향인 전북 순창에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농가를 얻어 씨감자 농사꾼으로 변신했다. 그렇게 해서 4개월이 흘렀고, 초겨울비가 뿌리던 지난 13일 순창 자택을 찾았다. 집 안에 먼저 온 손님들이 있어 동네 찾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총선 출마 얘기부터 꺼냈다. 정 전 의원은 “무위지행(無爲之行) 즉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론 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지금은 통일 씨감자 재단을 어떻게 설립할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천 의원 딸의 결혼식장을 찾은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연대설에 대해 묻자 “난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사람”이라며 웃었다.

복당 가능성을 묻자 “정치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손사래 쳤다. 다만 정 전 의원은 본인이 천착해 온 통일 및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문재인 대표의 선 경제공동체-후 평화통일론 모두 구호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건 정치”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의원에게 “전주(덕진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묻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선거 이후) 6개월간 신문과 TV를 보지 않았다. 나는 눈과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2萬 수험생에 교통대란 피해가라는 시위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말인 14일 서울광장, 대학로, 서울역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 조선일보는 '강행한다'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 문장만 소개한다. 이것만해도 의도가 확실하게 나타나니.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년 가슴 졸여 온 아이들과 부모네 심정을 알기나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대규모 집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집회 자체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기사의 제목은 “12萬 수험생에 교통대란 피해가라는 시위대”다.

서열화 현상도 뒤따르고 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제목을 차용한 ‘백 투 더 신라’라는 조소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다. 박 대통령은 최초 여성 지도자인 선덕여왕에 비유되며, 그를 따르는 ‘친박’은 성골·진골·6두품 등의 계급으로 나뉘어 불리는 식이다.

내각·청와대에 기용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현·김재원 전 대통령 정무특보 등은 성골, 대통령 당선 2주년 기념식사에 초대받을 정도로 가까운 서청원 최고위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은 진골에 해당한다. ‘신친박’ 원유철 원내대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은 한때 친이계였다는 출신 성분상 한계로 6두품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서열화가 갑작스러운 것만도 아니다. 2012년 대선 캠프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총애 정도에 따라 ‘산삼-장뇌삼-6년근 인삼-도라지’로 분류된다는 등급론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누리과정 예산 논란 때도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전직 당 대표였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월권”이라고 경고하면서 ‘친박 카스트’가 회자됐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미친놈들이 따로 없다. 골품제 운운하는 골 아픈 친박 이야기, 이 기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동아일보] [여의도 인사이드] 대선주자 없는 친박, 이원집정부제로 정권연장의 꿈?

친박 핵심 인사들의 일련의 ‘개헌’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당 복귀가 임박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이 개헌의 운을 뚫었다. 방향은 외치(外治)와 내치를 분리하는 분권형 개헌이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봇물론’ 발언이 나왔을 때 친박은 김 대표를 옹단 폭격했다. ‘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까지 가세한 파상 공세에 김 대표는 하루 만에 공개 사과했고 리더십에도 흠집이 났다. 외부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1년 만에 친박은 김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친박의 개헌론에 불편한 듯 “나는 개헌 이야기 안 한다”고 입을 닫았다.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의 내용은 이러하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체제로 ‘친박 정권’의 장기 집권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친박계에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소문에 힘

다른 수구언론은 어떤가.

[사설 '거리세력'과 손잡은 새정연, 노동개혁 막을 참인가 (동아일보)
[사설 주말마다 도심시위, 외국 관광객들 뿔 보고 가겠나 (매일경제)
[사설 민중총궐기? 때만 되면 온몸이 근질근질하다는 것인가 (한국경제)
[사설 소위 사회·시민단체에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나 (한국경제)

한겨레 사설은 다르다.

[한겨레] [사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민 겁박 하나

정부는 이번 대회가 불법 과격집회인 양 미리 단정하고 호도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집회 참가가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하고, 공무원들에게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매도한다. 매년 이맘때 해오던 집회이고 상반기부터 예정돼 일찌감치 신고까지 마친 합법 집회라는 사실은 아예 눈을 감는다. 농민들에게 “바쁜 수확철이니 생업에 매진하라”고 짐짓 걱정하는 척하고, 노동자들에게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노동개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때”라고 꾸짖기까지 한다. 농산물시장의 잇단 개방과 시늬뿐인 정부 대책으로 생존권까지 흔들리는 농민들의 아우성은 못 들은 체하고,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노동개혁인 양 우기는 꼴이다. 교사와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지금의 ‘헬조선’을 빚어낸 청와대 ‘불통정치’에 대한 항의, 국민의 기억까지 지배하려는 ‘역사 쿠데타’에 대한 저항이라는 사실도 외면한다.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으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려 드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다.

경찰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체 경찰력이 모두 비상근무를 하는 ‘갑호 비상령’을 발동했다. 갑호 비상령은 군의 ‘진돗개 하나’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로, 극도의 혼란 사태 혹은 계엄 선포 직전이나 발동되는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앞을 경찰버스로 가로막는 차벽 설치까지 공언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호들갑을 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대통령 한 사람의 불안감 때문이라면, 그런 대응은 애초 잘못이다. 국민의 아우성은 틀어막으려 할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려 할 때 비로소 가라앉는다.

[국민일보] [단독] “北, 내년 5월 당 대회서 ‘개혁·개방’ 천명”... 대북 전문가 프랑크 교수, 38노스 통해 주장

북한이 내년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1980년대 대거 시장주의 노선을 받아들인 데 이어 북한도 체제 변화를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 튀디거 프랑크 교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7차 당 대회가 열리는) 내년 5월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점진적·실질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이념적으로 어떻게 포장하든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처럼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크 교수는 옛 동독 출신 북한 전문가로 1991년부터 2년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했다. 프랑크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 집권 후 북한에 나

타난 변화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장마당을 활성화하고 있다. 협동농장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북·중 교역도 늘리면서 통제경제 체제에 시장적 요소를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김 제1비서 스스로도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인민의 경제적 발전을 정책 목표로 강조해 왔다. 프랑크 교수는 “김 제1비서는 현 북한 체제의 제약 속에서도 이런 조치들을 취해 왔지만 체제 자체의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것으로 본다. 그럴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북한 망하기만 기다리는 세력에게는 골치 아픈 뉴스가 되겠다.

[한국일보] KF-X 핵심장비 레이더 개발 방위산업체 해킹 당해

한국형전투기의 핵심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 즉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맡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의 전산망이 해킹에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북한이나 주변국의 소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긴급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그제 LIG넥스원의 컴퓨터 수십 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컴퓨터는 좀비PC가 된 상태”라며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인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8조원 규모의 KF-X개발에 착수한 이후 참여업체가 해킹을 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해킹된 컴퓨터는 주요장비 개발부서와 대외협력파트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전국의 사업장에서 정확히 몇 대의 컴퓨터가 감염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즉각 모든 컴퓨터의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고 자체 보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땅값거품의 비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들이 주축이 된 주택협동조합 ‘집콕’ 추진위원회가 한국의 ‘땅값 거품’이 어떻게 조성돼 왔는지 추적해 봤다. 분석 결과 해당 아파트들의 땅값은 1990년과 비교할 때 올 9월 현재 3.3배에서 많게는 14.7배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분양된 강남 아이파크의 땅값은 1990년 3.3㎡당 1460만원에서 11.7배 오른 1억2203만원이었다. 같은 해에 분양된 파크뷰는 1990년에 비해 14.7배, 1974년 주공1단지지는 10.6배, 1984년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3.3배가 각각 올랐다. 김병수 집콕 추진위원장은 “한국은 공공재인 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주다 보니 땅값과 집값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걸 해소하면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게 집콕의 분석이다.

[한국일보] [단독]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 집 하루 6시간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는 어린이집을 하루 6시간만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긴급히 쓸 수 있는 추가 이용권 즉 월 15시간을 모두 사용한 후 더 이용하려면 시간당

4,000원씩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의 전업주부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맞춤형 보육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루 6~8시간을 고려한다고 밝혔는데, 최종 6시간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 부모가 원하는 시간 중 6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오후 3시'로 한정해 무상 이용하게 했다. 복지부는 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해 '긴급 보육 바우치' 이용시간 중 사용하고 남은 시간은 다음 달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013년부터 만0~5세 영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참 진실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한국일보] 종잡을 수 없게 흘러가는 원세훈 파기 환송심

"국가정보원이 종북 세력에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종북으로 보고 대응했다가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 이는 적법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재판장)
"대응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수집해 수사파트에 넘겼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종북 대응한다며) 하면 안 되는 (정치 편향의) 댓글을 달았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검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종잡을 수 없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부분까지 포함, 모든 쟁점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수사팀은 "재판부가 무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준비기일. 이날도 재판부와 검찰의 설전은 이어졌다. 벌써 다섯 번째 계속되는 것이다. 4차 기일에선 검사가 재판 중 범정에서 퇴장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나온 트위터 계정 목록을 증거에서 배제하도록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때문에 불법 트윗 규모가 줄어든 것이 파기 환송심 재판의 쟁점으로 예상됐다. 보통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만을 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와 달리 이번에는 재판부가 쟁점을 확대하면서 결과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양상이다. 이 판정은 김시철 판사가 한다. 김시철 판사, 우리가 그 이름을 푹푹히 기억해야 한다. 청와대도 기억하겠지만.

[동아일보] 노동개혁 광고' 서울버스엔 못 붙인다

고용노동부가 서울지역 시내버스에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여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하려던 광고 문구는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발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동개혁 속도 좀 내시죠' 등 세 가지였다.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하니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와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발합니다'라는 두 개의 문구만 광고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문구 역시 광고로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광고도 아니고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여론 분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민주노총 측에서 노동개혁 반대 광고를 실으려 했지만 이 역시 거부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치자 고용부는 경기지역 버스에 광고를 내기로 하고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경남 즉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수용했기 때문일 거다.

■ 오늘의 날씨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의 강도가 아주 약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영동지방 10에서 30, 그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가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영동과 경상도 지방에서는 밤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고 온화해서 야외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구 19도로 예년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 제안합니다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참석하실 거죠? 한 네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경찰차벽을 훼손하거나 여타 도를 넘는 폭력행위자는 시민이 생포합니다. 일반 시민일 수 있겠지만, 일부는 11.14 민중총궐기를 폭력, 불법집회로 규정하고자 하는 세력의 꼬나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월요일자 1면 사진감을 제공하는 자, 평화시위를 바라는 시민이 아닙니다. 올봄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 때도 경찰 명찰을 가진 자가 폭력을 선동하다가 붙잡혔다.

둘째, 경찰이 수험생 눈술시험 현장 진입을 못하게 과잉 대응할 때에 현장 채증 합시다. 월요일에 "오늘만을 위해 공부했는데 '...불법시위로 가로막힌 진학의 꿈' 이런 기사가 수구언론에 의해 기획되고 있으리라 추정됩니다. 이미 오늘자 조선일보는 학부모 분통 운운하며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눈술시험이 있게 되는 성균관대학교 부근, 즉 대학로에서 경찰의 의심스런 모든 행위를 모든 시민이 해둬서 '덮어쓰우기'에 대비합니다. 당연히 수험생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겠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언론의 카메라 기자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경저망동을 삼갑시다. 모처럼 어렵게 응집된 시민의 집단된 결의입니다. 태극기 소각, '어버이'와의 싸움 등 평화시위의 본질이 왜곡되고 자칫 반대편에게 빌미를 줄 행동을 자제합니다.

넷째,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 직장인들께서 고층에서 부감'을 촬영해 올려주십시오. 시민이 많이 모인 장면을 한 화면에 담은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SNS으로 공유해주십시오.

정권에게 최대한 압박이 될 시위로 이 나라는 봉건적 전제국가로 만들려는 세력에게 냉수 한 그릇 선사하는 오늘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각종 문의 kimyongminpd@gmail.com]

[김용민 브리핑은 일요일은 쉽니다.]